

## 제 16 장 사도 행전 Tape #8105

바울은 그들이 세웠던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기억하겠지만, 바나바가 그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려가기를 얼마나 원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안돼! 라고 하며, 나는 그 아이를 원치 않아! 왜냐하면 그가 첫 번째 여행에서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야! 그를 데려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음 나는 그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는 내 조카야! 그가 전보다 성숙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데려가고 싶어! 바울은, 안돼! 그가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을 원치 않아! 그래서, 말다툼이 너무 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러스로 갔고, 그 때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실라와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시실리아와 밤빌리아를 거쳐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16 장에 보면:

**1 절 “그 때에 바울이 디모테와 루스드라에 이르매,”** (이 지역을 돌아보면,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거기에 디모테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는 믿는 유대 여인의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디모테와 바울은 함께 묶이게 되었는데, 거의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에게, 믿음 안에서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심할 것 없이, 바울은, 첫 번째 여행에서, 디모테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테를 교육하고 있었기에, 지금 돌아와서 보니, 디모테가 성숙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묶임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디모테는 바울과 여행하는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 중 여섯 개에서, 그는 디모테와 함께 그의 인사말을 보낸다고 언급하고 있을 정도니까 알만하죠. 한 편지에서 바울은 사역에 있어 디모테만큼 내 마음과 비슷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를 그들에게 보내노라고 쓴 적도 있습니다. 발전되고 아름다운 묶임이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에서 보듯, 바울은 디모테에게 두 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테는 그의 사역에 진짜 자산이 될 만큼 바울과 가깝고 아름다운 묶임이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그가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웠다고 바울은 언급했습니다. 음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2 절 “디모테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자더라.”** 디모테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 그는 좋은 젊은이예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지요.

**3 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고자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줄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이것은 흥미로운 것인데, 바울이 나중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고 기록한 것을 당신은 기억할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 같이 되었고, 그리스 사람에게는 내가 그리스 사람이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 불필요한 다툼을 막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바울의 아름다운 융통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디모테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인 줄 알고 그를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할례가 필요치 않다고 말하는 것이 우선이었을 것인데도 말입니다. 사실상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어서, 만약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거나,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큰 논쟁이 지난 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과 큰 논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끝내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평화롭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단지 유대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디모데가 할례를 받도록 기꺼이 허용한 것입니다.

내가 종종 말하는 것이지만, 융통성은 축복이고, 그것은 갈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미는 그것은 묶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경직성은 좋지 않습니다. 융통성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우리가 필요할 때 묶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 쓴, 할 수 있거든 모든 자로 더불어 평화를 하라는 말의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결코 타협이 아니고,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도 알지만, 골치 아픈 것과 고통스런 것, 그것들을 직면해 보고, 믿음에서 약한 자들처럼 어떤 문제들을 직면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른바 가르쳤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채소를 먹으라, 강한 자들은 고기를 먹으라, 채소만을 먹는 채식주의자는 고기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고기를 먹는 자는 채소 먹는 자를 경멸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만약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연약한 형제를 화나게 한다면, 차라리 세상에 있는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왜 고기를 먹는 자유로 그리스도의 몸의 사역을 깨뜨리란 말인가? 그래서, 내 주위에 그가 있다면 햄버거를 주문하지 않을 것이고, 단지 나 혼자만 있을 때에 치즈버거를 먹겠다는 말입니다. 당신도 알지만, 내 말은, 당신이 그것을 가까이 할 수 없을지라도 사람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한이 있음은 물론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만큼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부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4 절 “그들이 여러 도시를 지날 때에,”** (여기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그들이 이 도시들을 통과하여 여행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명령들을 그들에게 전하여 지키게 하니,”** 이 훈령들은 무엇이었을까? 할례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단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들로부터 자신을 피하라는 것이며, 스스로 삼가면 잘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로운 메시지를 그들에게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율법아래 있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그것들이 그들이 가져간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것이 다시 한번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하나의 융통성이 된 것입니다.

**5 절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 가니라.”** 아름답지 않습니까? 교회가 자라고, 믿음 위에 세워지니! 교회의 수가 증가된다니 말입니다!

**6 절 “이제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자, 들썩 함께 놓아 보면, 누가는 그들이 성령님에 의해 금지 당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을 때, 그는, 나중에 그들에게 쓴 것인데,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있을 때 얼마나 큰 결점이 있고 약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병들어 있었다, 내가 갈 수 없을 만큼 병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아시아로 보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강한 의지를 보였고, 여전히 아시아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큰 병에 걸리게 하시니, 그는 일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뒤 돌아보니 그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아시아에 가기를 바랐으나, 성령님께서 나를 막으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볼 때, 매우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그것들을 낱알이 이해하지 못했죠. 아마도 바울도 그 당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지시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가 아시아로 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7 절** “그들이 **미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들어가고자 애쓰되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매,**” **8 절** “**미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 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거기서 환상이 있었는데, 바울은 마케도니아로부터 온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는 바울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접적인 계시,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한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가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해 준비할 때, 누가 동행자로 바울과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고, 이 대목에서 누가 일행에 합류하므로, 이제 우리나 우리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것들 중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도 전도팀, 이 여행의 한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서 본 사람이 누가라는 것과 나중에 그가 누가를 만났다는 것이 아주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은 확인되었습니다.

**10 절** “**바울이 환상을 본 뒤에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고자 힘쓰니,**” (우리나 우리들이라는 말을 노트해 보니, 누가는 일행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확신하였음이라.**” **11 절** “**그러므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시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그것은 바람이 그들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이것은 단지 2일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내 말의 의미는, 흘러서 네아폴리스에 이틀 만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빌립보에서 8 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12 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곳은 마케도니아에서 첫째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라,**” (거기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제국 안에서 주요 전투가 있었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브루투스나 시저가 마크 안토니와 아우구스투스에게 의해 패한 곳인데, 이 패배 후에 로마 식민지로 이 빌립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는 빌립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것은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정부와 로마법이 시여되는 곳이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지방 재판관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나오지 않고, 로마 정부로부터 보내졌습니다. 원로원에 의해 지명되어 로마에서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에 의해 통치되었으며, 로마 원로원에서 지명된 이 재판관을 통하여 직접 통치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한 부분으로 주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대도시를 가는 양상이 있었는데, 주요 중심부로부터 나갈 수 있는 교회의 연락망을 만들기 위해 그곳을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13 절**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우리가 말했지만, 도시에서 유대인 어른 남자 열명이 모이면 예배하기 위하여 회당을 짓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열명보다 적은 숫자면, 대개는 강가 근처의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

다. 종종 울타리를 위하여 작은 벽을 들었습니다. 지붕은 없고, 낮은 벽을 친 것으로 피난처와 같은 울타리를 말하지만, 가끔은 전혀 없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빌론 포로시절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당신은 시편들에서 기억할 것인데, 어찌서 그들이 강가에 내려가서 울부짖었는지, 아는데로, 그것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 온 것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강가에서 만났는데, 빌립보에 강력한 반셈족주의가 있었다는 것은 아주 가능한 일하고, 반 유대 감상주의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서 살기에는 편치 못했을 것입니다. 왜 유대인이 빌립보에 그리 많이 살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남자들조차 언급이 없는데, 어떤 여인들이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하여 강가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14 절** “*두아디라시,*” (터어키에서 뒤쪽으로 있습니다.)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여성 사업가군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우리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므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나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셨다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루디아, 이 유명한 여인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15 절** “*이에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그래서, 여성 사업가와 위대한 여성 판매사원. 내가 의미하는 것은, 그녀가 압력을 넣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이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를 가치 있게 판단했다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시기 바라다며, 음 만약 당신이 머물지 않는다면, 우리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뜻입니다. 얼마나 큰 압력인가! 날카로운 판매사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녀가 우리를 강제하거나 설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여성 사업가!

**16 절**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이것은 아마도 다시 강독을 따라 내려갔을 것인데,)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소녀를 만나니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자더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소녀, 그녀는 통로가 되었는데, 악한 영이 그녀를 통해 말했다는 것으로, 안내를 했고, 사람들을 지시했으며, 장래를 말했습니다. 그녀를 쥐고 있던 사람은 비록 악마적인 힘이기는 하지만, 그녀의 영적인 힘을 꺼내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17 절**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들을 보여 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려는 것입니다. 교회의 큰 저주 중에 하나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맨 먼저 교회를 직접 정면으로 강습하여 파괴하려고 했으나, 직접 정면으로 강습하여 파괴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더욱 교활하게 교회와 연결해 왔습니다. 그 때 그는 수세기에 걸쳐 교회를 재앙으로 몰고 간 많은 거짓 교리들을 교회에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매우 급속히 육신적으로 교회는 타락해 갔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세상적인 기구로 부패해졌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 누가 너희를 피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히 지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도 요한이 죽기 전에 교회에 침투했던 많은 거짓 교훈에 대해 다루셨습니다. 교회가 첫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계시록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기계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단지 조직된 기관처럼 기계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니콜라당의 교훈을 허용해 버렸고, 그러니까 그것의 침투를 허용한 것이죠. 그들은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우상숭배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여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여자 이세벨을 허락하여, 교회에 영적인 간음과 음행으로 영향을 미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크게 약화되는 데는 이 침투하는 것들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이 여인이 진리를 말하고 있을지라도, 그것들에 대한 선전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예, 정말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께서서조차도 흥미로웠던 것으로, 그 분은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신 것을 안다고 하자, 주님은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은 묻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교제할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조화해 보려는 시도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강한 일치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교리적 신앙 안에 있는 다름을 한 쪽으로 치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통일을 위해 교회의 교리적 순수성을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통일을 위해 교회의 교리적 순수성을 타협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리적 순수성을 가능한 한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18 절 “여러 날을 이같이 하거든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즉시 나오니라.” 19 절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장터에 있는 처리자들에게 끌고 갔다가,” 20 절 “행정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유대**

**인들인데,”** (그 도시에 많은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반의미론 감정 때문에 ‘유대인이 되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하며,” 21 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풍습들을 가르친다 하거늘,”** 로마인인 우리가 준수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이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기에 그런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인인 당신은 카이사르가 주라 알고 있지요? 정부가 주인인 것이지요. 그러나 밖을 보세요! 미국에서 우리가 그것에 가까운 것을 보기 때문인데, 그들은 정부가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길 바라고 있고, 점점 더 그들은 교회에게 제한을 강요하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는 정부에 등록하도록 자연스럽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정부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립하는 것에 대해선 정말로 정부의 승인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존립에 대해선 분명한 하나님의 승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이 미치는 만큼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조직되고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여, 당신이 알다시피, 정부에 기록들을 남겨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이사르에 대한 전체적인[whole] 개념은 그것은 주[lord]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우리에게서 점점 더 감소되고 있고,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정부의 주인 됨이 점점 더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관습들과 모든 것들은 우리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기에는 적법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2 절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니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버리고 때리라고 명령하여” 23 절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 하며,” 24 절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차꼬에 단단히 채우니라.” 아마도 그들의 손과 머리도 채웠을 것이지만, 분명 그들의 발은 감옥 안에서 차꼬에 채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화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자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로 마케도니아로 인도된 그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할 만큼, 그들이 매를 많이 맞았고, 그것 때문에, 등에 통증을 아프게 느끼며, 그들은 차꼬에 채워져 감옥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인도하고 계시지 않는지 의심하게끔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25 절 “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낙심되기보다는, 모든 것이 가라앉기보다는,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기에 충분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고, 위대한 길입니다. 승리 후에, 하나님의 역사 후에, 그 분께서 영광스럽게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노래할 것입니다. 종종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에 대해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노래를 짓습니다. 신 32:1-43 에서 모세의 노래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영광스러운 찬양입니다. 그 분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반석 같으신 것은 없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행하신 것에 대한 위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용하셨을 때(사사기 4, 5 장), 시스라와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신 후, 그녀는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그곳의 그 때를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에 대한 노래를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 끊임없이 노래를 지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행하셨던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께 대해 노래하고, 주님께 노래하므로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떠우는 위대한 길! 주님께 당신의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얼마나 낫습니까?

그러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은 처참한 일이죠. 등에 고통이 있는데, 당신이 알다시피, 이것은 처참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이러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러나, ‘왜?’ 라는 수채 웅덩이 속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감소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부적절과 무능력의 빛이 아닌, 그 분의 능력의 빛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보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선언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했고, 죄수들이 그것들을 들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약간 강한 표현인데, 그들은 그것들을 주의 깊게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들었으나, 아마도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이런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다니! 라고 말입니다.

26 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다 풀리니라.” 보통은, 모두가 벽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 모습인데, 쇠사슬이 벽에 붙어 있어 그들의 손목을 돌려 묶습니다. 이 지진이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도록 벽에 있는 이 핀들을 흔들어 느슨하게 했던 것이고, 문들이 열리도록 흔들었습니다.

27 절 “간수들이 잠에서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장에서 만난 간수는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무감각하고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죄수들은 분명히 고통을 당하기 위해 그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그들의 등은 피투성이였습니다. 매질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옷을 벗겼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들의 등은 차라리 생살이 나왔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그들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을 단지 창고에 묶어 놓고, 그곳에서 자게 했을 만큼,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옥이 열릴 만큼 지진으로 흔들려 사람들이 풀려 나갔으므로, 그는 자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으로는 만약 죄수들이, 그의 보호 속에 맡겨졌던 자들이, 도망이라도 했다면, 그의 생명을 잃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기억하는 대로 몇 장 뒤로 가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구출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해롯이 교회를 대항하여 그의 손을 찢을 때, 그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는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밤에 주의 천사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천사가, 너의 신발을 신고, 나를 따르라고 하자. 문이 저절로 열리고, 베드로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이 베드로를 데려가려고 와서 보니, 아, 감옥문은 잘 닫혀 있었고, 간수들이 그 자리에 줄지어 서있었으나, 그들이 데려갈 베드로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롯은 간수를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죄수가 도망하도록 방치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벌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나이는 한 번 일로 로마를 구할 것이라 계산했기에,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죄수들이 도망하였다는 생각에 자살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28 절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부르되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 절 “이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 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30 절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 받기 위하여 당신이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한 번은 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여쭙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개의 질문은 같은 것인데, 요 6:28-29 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들이 무슨 일을 했어야만 하는 것을 알기 원했던 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를 알기 원하는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에게, 바울은, 31 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을 노트하세요. 우리 교회로 나오시오. 그는 그에게 어떤 규칙들이나 법규들을 주지 않았고, 어떤 율법의 헛디딤을 놓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주 많은 다른 요구들을 더함으로 이 문제를 일종의 복잡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바울의 대답이 있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쓰기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롬 10:9)고 하여, 다시 여기서도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아이라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 하나님 복음의 단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리고, 신학적인 논쟁과 그들이 논쟁하는 비상식적인 문제에 잡히지 않기를 바라니이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단순함을 붙들게 하소서!

**32 절**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33 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굳어있거나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34 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기뻐하니라.” 그는 회심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지를 봅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가 찾는 것 이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버리게 되는 매우 비극적인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도록 놔두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자주 괴롭히는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있고, 어렵다는 환경들이 가끔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것을 통과해야만 하는가? 하며 이상히 여깁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빌립보의 간수의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의 경우입니다. 그 분은 구원에 대한 그의 필요를 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를 데려가는데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가장 혹독한 환경들에 놓일 때, 여전히 주님께 노래할 수 있었던 두 죄수들을 취하실 수 있어, 그가 잠자러 가기 전에 저 뒤에서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던 자들이 깊은 감동을 오히려 그에게 주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진을 취하셨습니다! 가끔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도구라는데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시지요. 이 사나이에게는 지진을 취하셨는데, 그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그들을 얻는 데도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당신이 알다시피, 매를 맞았고, 그리고서 감옥에 집어 던져졌죠.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고통을 겪은 경험이었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간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이 롬 8:18 에서 말한 것처럼, 잠시의 고통이 하늘의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가 현재의 고통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영광과 비교될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끔 우리 부분에 있는 작은 희생에 대해서,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집어넣을지도 모르지만, 그 분은 그것들을 통하여 좋은 친구에게 도달하기를 추구하고 계시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자라도, 그들은 우리의 삶을 살피고 있었던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승리로 그 위기를 통과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당신이 어려운 상황들을 다룰 수 있는 길을 보므로, 복음의 실체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즉, 그들에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언했던 복음의 진리로 그들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그 분의 사랑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빌립보, 거기에 있는 간수를 찾아 오셨기에, 그는 기뻐했고, 그의 집에 있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 가족이 그리스도에게 이끌려 나왔습니다.

**35 절** “날이 새매 행정관들이 하사관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 사람을 놓아주라 하니,” 왜 그렇게 주문했을까? 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 유대인들에게 행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을 풀어주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공정치 못함을 알게 되어, 그들은 그 밤에 마음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36 절 “감옥의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고하되 행정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선생들을 놓아주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떠나 평안히 가라 하거늘,” 나는 영의 사람, 바울을 좋아 합니다. 37 절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더니 이제는 몰래 내보내고자 하느냐? 참으로 그럴 수 없으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매,” 죄도 없는 로마 사람을 때리는 것은 큰 죄였습니다. 이 재판관들은 그것 때문에 죽음에 놓일 수도 있는데, 로마 시민들은 로마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겠지만, 나중에 이것은 흥미로운 것이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작은 소요를 만들어 냈던 예루살렘의 성전 뜰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을 때, 그들이 안토니오 요새로 안전하게 바울을 데려왔으므로, 로마 시위대의 대장은 군인들에게, 그가 위로 걸어 올라가므로, 그에게 채찍질하라고 하고, 거기서 그들을 그렇게 화나게 만들도록 그가 말했던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준비하는데, 그가 묻기를, 너희가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느냐? 고 하자, 그 사람은 대장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알려 주자, 대장이 바울에게 총알 같이 달려와, 당신, 정말 로마 사람이 맞아?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예, 그렇소! 그 대장은 말하기를, 나는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음 그래서, 그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당신은 얼마나 주고 산거요? 바울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자올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말할 필요가 없이, 그들은 바울을 채찍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경우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왜 여기서 주장하지 안 했는지 이상하지요? 나도 잘 모릅니다. 왜 한 장소에서는 그가 그렇게 했고, 다른 장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감옥에 던져지지 않을 것과 간수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분이 알고 있는 자들의 마음에 그 분의 진리와 사랑을 가져가는 사역에 대해 그 분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으시니, 받도록 여실 것입니다.

38 절 “하사관이 이 말을 행정관에게 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39 절 “와서 그들을 찾아 데리고 나와,” (개인적으로 와서 구걸합니다.) “그 도시에서 떠날 것을 요청하니,” 이보시오, 당신들!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지 않겠소? 이것은 가다라[또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과 같지 않습니까? 참 흥미롭습니다. 그 분이 사람에게서 나간 마귀의 군대를 묶어 돼지의 떼에 들어가게 하고, 그것들이 내려가 바다에 빠지자, 사람들은 와서, 그들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해안에서 떠나기를 바랐습니다. 자, 여기의 문제와 똑같은 것이 있어 흥미로운데, 귀신에게 잡히기만 하면 야단법석을 떨기 시작하던 소녀가 그것으로부터 구출된 이야기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차라리 악마와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흥미롭지요! 세월도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악마와 사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마법, 마약 중독이 심한 어린 소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마약과 마법을 가진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는 매우 흥분했고, 화를 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예수 속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차라리 마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거야!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한 때 그 아이를 이해했으나, 지금은 그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사탄과 동행하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기고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에게 그 도시를 떠나도록 애걸했습니다.

**40 절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 (그들은 즉시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니라.”** 자, 아마도 누가가 머물렀던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누가가 그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들을’, 또는 ‘우리가’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가 ‘그들’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가 다시 빌립보로 돌아오는 때인, 20 장까지는 ‘그들’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거기서 ‘우리들을’, 또는 ‘우리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났고, 아마도 그들은 누가를 빌립보에서 사역하도록 남겼을 것인데, 그 이유는 빌립보 시에 강력한 교회가 발전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만약 당신이 그 단원에서 최고 등급인 A+를 맞기 원한다면, 이번 주에 빌립보서를 읽어 보기 바라고, 그렇게 하다면 추가 점수를 주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결과로서 빌립보에 세워졌던 교회 속에서 당신은 지금 약간 더 좋은 배경을 얻을 것이고, 아마도 바울이 떠난 뒤, 그곳에서 누가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 장에 이르기 전까지 누가는 다시 그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다가, 한 번 더 말하면, 그는 ‘우리가’ 나 ‘우리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흥미로운 결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선함과 성령님의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깨어있지 않았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당신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일이 어렵고 우리가 반대되게 갈 때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매우 어둡고 냉혹한 날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찬양과 사랑과 감사의 노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며, 대신에 우리에게 향하신 당신의 위대한 사랑과 선함과 공훈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을 축복해 주소서. 당신의 사랑과 영으로 그들을 채우소서. 그리고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